

소셜픽션 지금 세계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이원재 외 지음

출간일 : 2014년 2월 20일

정가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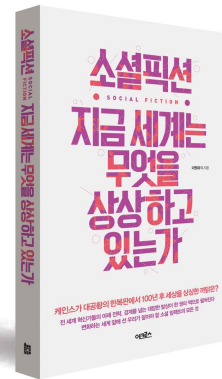
페이지 : 328쪽

판형 : 신국판 152*225

분야 : 경제경영 > 경제 > 경제 전망

사회과학 > 사회 문제

ISBN : 978-89-97379-38-5 (03320)



**전 세계 혁신가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바꾸어내고 있는가?
 변화하는 세계 앞에서 펼쳐지는 대담한 발상과 놀라운 미래 전략!**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의 이원재가 포착한 2014년 세계 혁신가들의 미래 기획!

옥스퍼드 스콜월드포럼, 아스펜 아이디어 페스티벌, 사회적 자본시장 컨퍼런스..... 지금 세계의 혁신가들은 살고 싶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거침없는 상상에 뛰어들었다. 공상과학소설이 등장해 과학과 사회를 바꾸었다듯이 소셜픽션은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가장 도전적인 기획이다.

이러한 상상의 역사는 대공황 시절 '100년 후 우리 후손들의 경제생활'을 예측했던 케인스로부터 출발한다. 유럽공동체, 제주 올레길, 스웨덴 복지국가 등으로 이어지는 오늘을 바꾼昨天的 상상들을 살펴보면 이 놀라운 제안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혁신가들은 지금 무엇을 상상하고 있을까? 이 책에서는 참여, 자립, 달라지는 정부, 알고리즘 사회라는 4개 분야로 나누어진 11개의 혁신적인 기획들로 미래를 바꿀 오늘의 상상을 제시하고 있다.

스콜월드포럼에서 소셜픽션의 개념을 제안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는 '제약 없는 상상을 마음껏 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지금 세계는 1929년 대공황 때보다 더 높은 벽 앞에서 서 있다. 소셜픽션을 쓰는 이들은 대담하게 상상하고, 스스로 살고 싶은 미래를 더욱 적극적으로 생각해내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한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경제, 생활, 문화, 과학을, 가로지르며 담대한 상상으로 세상을 바꾸어 내는 소셜픽션이라는 미래 패러다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1. 케인스가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100년 후 세상을 상상한 까닭은?

“하루 3시간만 일하는 시대! 생계를 위한 노동이 사라진다.”

- 1930년, 케인스가 쓴 100년 후 세상에 대한 소설픽션

“왜 집집마다 망치가 필요하지? 자동차도, 집도 함께 쓰면 안 될까?”

- 2008년, 경제위기 속에서 소유에 대한 태도를 바꾼 사람들

“GDP 대신 행복GDP, 사회진보 지수로 진짜 삶의 질을 평가하자!”

- 2013년, 경쟁 전략의 대가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빅 아이디어

20세기 세계 경제의 밑그림을 그렸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30년에 쓴 에세이 <우리 후손들의 경제적 가능성>에서 꼭 100년 뒤인 2030년의 사회를 그렸다. 케인스는 100년이 지나면 과학 기술로 인해 축적된 자본과 높아진 생산력으로 인간의 경제적 능력이 8배까지 상승될 것이라 보았다. 이 사회에는 생계를 위한 노동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나누며, 유쾌하고 지혜롭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만이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예언이 틀렸을까? 아니다. 케인스가 쓴 것은 일종의 소설픽션(Social Fiction)이었기 때문이다. 소설픽션이란 사회에 대해 제약 조건 없이 상상하면서 미래를 그리는 기획 방법이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사회나 조직의 변화를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통해 먼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나면,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례대로 생각하고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케인스는 기존의 관점을 바꿔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현실적 제약 조건을 뛰어넘는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했다. 그 결과 공황 때 돈을 풀어 수요를 늘리는 처방을 내렸고 이는 뉴딜 정책으로 구현되거나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며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만들어냈다.

1929년 대공황보다 더 높은 벽 앞에서 있는 오늘날, 또 다시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 책은 지난 100년 동안 상상을 통해 세상을 바꿔나간 혁신가들의 사회적 상상의 계보를 추적하고 있다.

2. 사회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기획은 바로 소설픽션을 쓰는 것!

“빈곤이 사라지는 소설픽션을 써보도록 합시다. 빈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린이들이 박물관에 가야 하는 세계를 그려봅시다. 공상과학 소설이 있었기에 과학이 따라가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해 소설픽션을 쓰고 문제 해결 방법이 따라오게 해봅시다. 상상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전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이자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의 저자이며 안철수 진심 캠프의 정책기획실장을 맡으며 한국 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누구보다 깊게 경험한 저자는 자신의 비전을 정책으로 구현하겠다는 미완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혁신의 밑그림을 그리는 현장들을 찾아다녔다. 그곳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소설픽션이었다. 사회적 상상들이 벌이는 잔치의 자리는 한국의 소설픽션을 쓰는 ‘소설픽션랩’으로 이어졌다. 사회 변화는 미래와 과거가 밀고 당기는 가운데 일어나며 사회적 상상이 사라지면 사회 진보는 멈추고 만다. 전 세계는 이미 사회적 상상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

소설픽션(Social Fiction)이란 그라민 은행의 총재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가 스

콜월드포럼에서 “과학이 공상과학 소설(Science Fiction)을 닮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소설 픽션을 써서 사회를 변화시키자”며 주장한 개념으로, 상상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유누스는 제약조건 없는 상상을 마음껏 하는 것이 사회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빅 아이디어를 강조하는 아스펜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는 빈곤층에게 사회적 금융의 혜택을 주는 어큐먼 펀드의 창립자 재클린 노보그라츠, TED라는 집단지성의 상징을 이끄는 총괄 큐레이터 크리스 앤더슨을 만나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과 실천을 배울 수 있었다. 가까운 과거를 살펴보자.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염원으로 만들어진 유럽연합, 사람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자 한 넬슨 만델라, 유럽 최빈국에서 최고 복지국가가 된 스웨덴, 빈곤 문제를 다른 금융으로 해결해 낸 그라민 은행, 한국에도 치유의 순례길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제주 올레까지 어제의 사회적 상상이 오늘의 세상을 바꾸어낸 사례는 이미 우리 앞에 가득하다. 이 책은 이렇게 놀라운 제안들이 어떻게 제안되고 구체화되며 실현되었는지를 너무나 구체적이면서도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지금 세계가 상상하는 미래 혁신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안내서

- 빈 침대와 주차장에서 쉬는 자동차로 부수입을 올리는 공유경제?
- 주민과 직원이 하나가 되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도시가 있다면?
-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비영리 벤처 펀드?
- 여성들이 모여 동네 의원과 헬스장을 만든 여성주의 공동체 경제의 실험 결과는?
- 인센티브제를 정부 정책에 적용할 수 있을까?
- 자전거 타기처럼 단계별로 쉽게 배우는 수학 공부로 대학 캠퍼스가 대체된다면?
- 기자 없이 작성되는 로봇 저널리즘, 완벽한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의 시대에 인간은 어떤 노동을 할까?

전 세계 혁신의 구루들은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참여를 통해 집단지성과 공유경제라는 연대를 실현해 낸 사람들, 스스로 고용하고 돕기 위해 시장의 원리로 빈곤을 극복하는 현장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발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버넌스, 인간의 노동과 비효율을 제거하려는 기술의 가능성이 보여주는 알고리즘 사회라는 4가지 분야는, 각기 미래 트렌드를 만드는 소셜 키워드들이 제시한다. 독자는 이 과정을 따라가며 케인스로부터 이어진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에 관한 가장 창의적인 혁신적인 경제 교과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세계가 지금 어떤 사회를 상상하는지에 대한 안내서이며 우리가 살고 싶은 세계에 대한 유쾌한 상상들은 경제적 파국에 맞서 사회를 바꾸어나갈 소중한 미래 기획이다.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이들이 꿈꾸는 미래 사회의 모습과 현재 진행 중인 가장 앞선 실험들이 어우러져 세상을 바꾸리라는 확신을 전달하고 있다. 1년짜리 기획이든 10년짜리 기획이든 지금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바로 그 넘치는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세상에 관한 자유로운 상상을 담은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한 소설픽션. 미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경제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 저자 소개

이원재: 경제평론가. 소설픽션랩 소장. 이전에 한겨레경제연구소장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지냈다. 현재는 경제정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강정수: 경제학 석사. 경영학 박사. 인터넷과 사회변동에 대한 블로그 '베를린로그' 운영자로 <한겨레21>, <블로터> 등을 거쳐 현재 <슬로우 뉴스> 필진이며 (사)오픈넷에서 활동 중이다.

김산: 개발자, 콘텐츠 기획자, 서비스 기획자, PR과 마케팅 컨설턴트 등의 직업을 거쳤다. 두 아이에게 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으로 소셜픽션랩에서 아이들이 살 세상을 상상하기로 했다.

김진화: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Korbit.co.kr)의 공동설립자이자 이사. 비영리 공익법인 타이드인스티튜트 이사. 인터넷과 제조업, 영리와 비영리, 국경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회 혁신을 구현해왔으며 <<넥스트 머니 비트코인>>를 집필했다.

윤지영: 한국경제TV '와우스타' 문화부 팀장. 창조한국당 '사람희망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을 거쳐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다.

이성은: 이화여대를 거쳐 영국 요크대학에서 여성학을 공부한 여성학 박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성평등 정책을 연구했으며 현재 다양한 격차 해소를 위한 평등정책네트워크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숙현 : 저널리스트. 기자 출신으로 워싱턴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PBC, YTN 라디오 등에서 정치·사회 이슈를 가지고 청취자들을 만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치, 외교, 남북관계 등이다.

● 추천사

“이 책은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그리고 함께 넘어서야 할 문제들에 대한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함께 써가는 소셜픽션. 흥미진진하고 멋진 사회에 관한 자유로운 상상을 담은 소설. 미래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 서명숙(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내가 상상하는 것, 그것들이 실제 작동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은 내 삶을 축제로 만드는 일이자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한 경제학자의 깊고도 발랄한 상상과 성찰이 우리 사회를 치유해낼 수 있으리라는 겸손한 깨달음을 내게 주었습니다."

- 정혜신(마인드프리즘 대표)

● 목차

추천사

서문 : 케인즈가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100년 뒤를 상상한 까닭은?

Intro : 소셜픽션을 찾아 떠난 여행

PART 1 : 오늘을 바꾼 어제의 상상 - 그들도 상상으로부터 출발했다

chapter 1.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는 불가능할까

- 유럽연합과 장 모네의 정치적 상상

chapter 2. 사람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수는 없을까

- 넬슨 만델라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영원한 갈망

chapter 3. 유토피아는 왜 존재하지 않을까

- 유럽 최빈국에서 최고 복지국가가 된 스웨덴

chapter 4. 빈곤 문제를 시장 원리로 해결할 수 있을까

- 그라민 은행과 무함마드 유누스의 다른 금융

chapter 5. 걷다 보면 치유가 되는 길이 한국에도 있다면

- 서명숙과 제주 올레의 꿈

PART 2 : 내일을 바꿀 오늘의 상상 - 지금 세계는 무엇을 상상하나

chapter 6. <참여> “모이고, 나누고, 바꾸다”

-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

- 왜 가끔 쓰는 망치가 집집마다 있어야 할까

- 특별한 도시가 특별한 기업을 만났을 때

- 직접민주주의로 21세기의 아고라를 만든다

chapter 7. <자립> “우리는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

-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자립시키다

- 여성주의로부터 공동체 경제를 상상하다

- 낙후 지역 몬드라곤의 협동조합 도시가 되기까지

- 인생에서 은퇴하지 않는 법

chapter 8. <달라지는 정부> “누가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할까”

- 성과 중심의 정부를 상상하다

- GDP 숫자에 감춰진 국민 행복지수를 찾아라!

- 전 지구적 위기에 맞서는 세계정부의 꿈

chapter 9. <알고리즘 사회> “어제의 지식이 오늘의 기술을 만나다”

- 컴퓨터가 수학 선생님을 대체한다면

- 자본에 얽매이지 않는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 정보와 지식의 디지털화, 기사 없는 기사와 로봇 저널리즘

- 기계,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다

부록 : 소셜픽션, 함께 모여 써봅시다

후기 : 당신의 상상은 무엇입니까?

주석

찾아보기

저자 소개

● 책 속에서

“이 책은 세계가 지금 어떤 사회를 상상하는지에 대한 안내서다. 장기적 미래를 생각하는 이들이 꿈꾸는 미래 사회의 모습과 현재 진행 중인 가장 앞선 실험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다. 큰 그림에서 사회 변화의 방향을 느껴야 당장의 기획이라도 뒤쳐지지 않을 수 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거대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내용을 담은 게 소셜픽션을 찾아 떠낸 여행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거대한 사회제도들이 처음에는 아주 대담한 상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21쪽, 서문)

“케인스가 이야기한 지혜롭고 유쾌하고 풍족한 사회는 가능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방법마저 거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좀 더 다듬어 실천하면 되는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케인스의 세상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어쩌면 그런 상상을 비현실적이라 치부해버리는 우리의 경직된 사고방식이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보는 연습이 아닐까요?”(319쪽, 후기)